

장흥에 아토피 치료·휴양 복합단지

오염되지 않은 쾌적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치료와 휴양센터가 장흥군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장흥군은 국내 최초로 아토피 재활 치료와 휴양 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장흥읍 우목리 편백숲 13만㎡에 50억원을 투입해 한옥촌과 황토 흙집, 편백 찜질방, 산책로·쉼터, 각종 체험시설이 들어서는 '우드 랜드' 조성에 착수했다. 또 1천7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오는 11월부터 2011년까지 우목리와 가산리 일대에 아토피 재활시설과 숙

우목리 편백숲에 재활·숙박시설 등 조성 '사상의학' 랜드도 추진...한방관광 육성

박시설, 아토피 연구소, 양·한방병원, 관련 대학원 설립 등이 추진된다. 장흥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장흥군과 전남도, 고려대산학협력단 등과 태스크 포스트팀을 구성했다. 장흥지역은 청정한 공기와 토양 등으로 아토피 발병율이 전국에서 제일 낮아 재활치료와 휴양 복합단지 조성

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또 관산을 옥담리 일대에는 '사상의학(四家醫學) 체험랜드'가 조성된다. 장흥군은 한방산업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 오는 2011년 완공목표로 사상의학관 등이 들어서는 '사상의학 체험랜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06년 사상의학 체험랜드 기

본계획을 수립, 투자유치 설명회와 MOU체결, 사업대상자 공모를 거쳐 지난해 사계절 유리온실 생약초 체험장을 준공했다. 이밖에 약초탕과 찜질방, 한방진료원, 황토펜션, 한방민속 체험관, 황토방 등 다양한 체험시설을 세워 한방관광 프로그램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 시킬 계획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사상체질에 맞는 다양한 체험 관광상품을 기존 관광지와의 연계시켜 특화된 한방관광 메카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친환경 벼논에 돌아온 황로떼 모내기가 한창인 담양군 대전면에 황로떼가 날아들었다. 최근 황로가 농촌 들녘에 다시 나타난 것은 담양 등 전남지역에 친환경 농업이 확산되면서 지렁이나 미꾸라지 같은 먹이사슬이 되살아난 때문으로 보인다. (전남도 제공)

장성 문화센터 실내 골프연습장 개장



장성군 문화센터 지하에 8개 타석과 3홀의 퍼팅장을 갖춘 165㎡ 규모의 실내 골프연습장이 개장했다. 장성 군민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매달 첫째주 토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문을 연다. /장성=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인사 잠음 최소화...발전 동력 찾겠다"

정기호 신임 영광군수 군정 정상화 전격들

정기호(53) 신임 영광군수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정 군수는 지난 9일 오전 실·과·소장 회의를 연 데 이어 10일에는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기공식에 참석했다. 특히 그 동안 인사 문제 등으로 잠음이 일었던 공무원 조직이 안정과 신뢰를 되찾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부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정기호의 당면 과제는 지역의 발전 동력을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해 ▲태양초 명품화 사업



▲지역특산품 산지 가공·유통 센터 ▲법성포 단오제 및 영광 우도 농악의 국가 문화재 지정 ▲기숙형 공립학교 지정 ▲영어체험센터 확대 설치 등을 추진기로 했다. 정기호는 "군정의 모든 분야에 경의를 집중해 '살기 좋은 영광'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장애시설·독거노인 찾아 '사랑의 봉사'

한전 나주지점...자발적 성금 모금 '러브 펀드' 운영도

한전 나주지점(지점장 조태웅)이 사회봉사단을 조직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나주지점 사회봉사단은 매달 정기적으로 장애인 시설을 방문해 목욕봉사를 펼치고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장판과 벽지 등을 교체해주고 있다. 또 2개월에 1번씩 영산강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연 2회 관내 불우노인들을 초청해 음식을 제공하는 행사를 열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봉사활동을 위해 나주지점 56명의 직원들은 매달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금하는 '러브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나주지점 사회봉사단은 지역 사회를 위한 친 기업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 3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박철웅 총무과장은 "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 봉사활동인 만큼 매년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함평군 '도시림 조성 공모' 당선...사업비 5억 확보

함평군이 산림청의 '도시림 조성 공모'에 당선돼 5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함평군은 산림청이 시가지 주변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산림서비스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실시한 도시림 조성 공모사업에 당선됐다. 군은 기존산방 일대를 녹색 네트워크

후보지로 제출해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현장 실사 등을 거쳐 당선됐으며 올해 안에 일야 등 10ha를 매입한 뒤 실시계획을 거쳐 내년에 국비로 산림 서비스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사업 공모에는 전국 11개 시·도에서 41개 기관이 응모해 함평군 등 모두 15개 기관이 선정됐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화순군 '2008년도 동원자원조사' 대통령 표창 수상

화순군이 지난 5일 '2008년도 동원자원조사' 유공 정부표창에서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동원자원조사'란 전지나 사면, 또는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해 차량이나 기술인력 종사자를 조사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화순군은 군사작전 지원에 필요한 119대의 차량을 지정 관리하고 있다. 또 기술인력 종사자 3천863명을 대상으로 연 2회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갖는 한편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광산 평동산단 산업폐기물 3년째 무단방치

행정명령·벌금 부과도 불응...경찰 불법여부 수사 착수

광주 평동산단지의 한 농지에 수천에 달하는 산업폐기물이 3년째 무단 방치돼 있다. 광산구에 따르면 지족동 평동산단의 외곽 2천여㎡ 농지에 7천여t으로 추정되는 5m 높이의 산업폐기물이 쌓여 있다. 이 쓰레기는 대부분 철골과 목재,

밭줄 등 산업폐기물로 2006년 여름부터 쌓이기 시작했으며 주변 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이 폐기물을 적정한 운반업체인 H사 측은 일단 행정명령과 벌금 부과에도 불응하고 있다. H사는 지난해 초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

았으나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다. 관할 행정기관인 광산구도 수차례 영장집지 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H사는 "자금난으로 폐기물을 치울 수 없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주 광산경찰서는 최근 H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폐기물 처리 과정의 불법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광산=기원태기자 wrtee@

'나눔의 미풍양속' 법성포 단오제 성료

연날리기 대회·수륙재 첫 선 관광객에 풍부한 볼거리 제공

나눔과 어울림의 한마당 축제인 영광 법성포단오제가 7일 산신제를 시작으로 개막돼 9일까지 전국 국악경연대회와 그네뛰기대회, 창포머리감기, 투호 등 다양한 문화행사와 민속놀이로 펼쳐졌다. 올해 단오제는 세계연날리기 대회와 불교의식인 수륙재(水陸齋)가 첫 선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세계연날리기 경연대회는 8개 나라에서 초청된 30여명의 선수들이 각 나라의 명을 걸고 민속 창작의 기량을 펼쳐 관광객들에게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특히 전국에서 모인 2천여명의 관광객과 신도들이 지켜본 가운데 연 2회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갖는 한편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바다와 육지에서 억울하게 죽은 원혼을 달래는 불교의식인 수륙재는 영광 우도농악 터 울림을 시작으로 무속 수륙재 시연과 혼령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영가로 대미를 장식했다. 행사 마지막 날인 9일에는 법성포 단오제만이 갖고 있는 나눔의 장이 펼쳐졌다. 영광굴비와 곁들여진 단오맞이 비빔밥 나눔 축제(사진)는 관광객들에게 영광의 아를

다운 '나눔의 미풍양속'을 실감케 했다. 법성포 단오 보존회 오진근 회장은 "법성포 단오제는 나눔과 어울림의 장이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단오행사"라며 "400여년의 전통 문화 유산을 더욱 계승 발전시켜 영광만의 특색 있는 전통 문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자연 사랑!! 살고싶다

시행 : (주) 로베스테이트
시공 : (주) 지앤지개발

오랜기다림의 행복!!

'달양수복' 에서 당신의 꿈을 이루세요

- 관수 풀리던 가동
- 집안, 실내, 실외 시공 100% 완료
- 긴급로 일할 때 빠른 시공 서비스
- 부지에 따른 후(후) 시공
- 전설부담금, 계약부담금 등
- 전담주최 소독 서비스
- 1가구 2주택 중개서비스
- 분양가 50% 이상 대용 서비스
- 도시의 집
- 달양수복사(주) 대표이사 최영진

www.rovestate.com

문의 062) 251-4000 / 061) 383-2346

달양수복사(주) 대표이사 최영진